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적 역할*

이 영 선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적응적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자신감과 걱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자신감이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거주 남녀 고등학생 394명(남학생 208명; 여학생 186명)으로 청소년의 완벽주의, 문제해결자신감, 걱정수준에 관한 청소년 자기보고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자신감은 남학생의 걱정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자신감이 낮을수록 걱정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만이 걱정과 관련을 보여,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높은 여학생은 걱정이 많았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문제해결자신감은 완벽주의가 걱정수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중재하여, 특히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 문제해결자신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걱정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문제해결자신감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와 문제해결자신감이 남학생의 걱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걱정, 부적응적 완벽주의, 적응적 완벽주의, 문제해결 자신감, 청소년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아동학전공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협동과정 교수 (E-mail : psy@ewha.ac.kr)

I. 서론

걱정(worry)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대체로 불안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Borkovec, Robinson, Pruzinsky와 DePree(1983)에 의하면 걱정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며, 상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일련의 사고와 심상'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걱정을 '미래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상을 막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하여(Davey, 1994; Hunt, Wisocki & Yanko, 2003), 걱정은 불안과는 다른 분리된 개념이며 역기능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걱정은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상황에 의해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면,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병리적인 걱정으로 발전되기도 한다(Davey, 1994). 대체로 청소년의 25%는 통제가 불가능한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evin, 1996), 이는 청소년기가 급격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독립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로서 생애 어느 시기보다 일상생활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발달적인 특징 외에도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 걱정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이르러 특히 정서적으

로 불안해하거나 심한 경우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장애의 핵심적인 증상인 '걱정'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강문희, 정은의, 2003).

청소년기의 걱정은 학교부적응이나 사회성 및 성취동기의 위축(Albano & Hack, 2004) 또는 불안(Muris, Roelofs, Meesters, & Boomsma, 2004)과 관련되는 한편,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건강이 성인기 이후의 성격발달 및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rber, Eccles, & Stone, 2001; Harrington, Fudge, & Rutter, 1991)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 및 사회적인 성취압력으로 인한 걱정이나 불안정도는 어떤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황에 비교적 잘 적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걱정수준을 예측해주는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특히 걱정증상을 유발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으로써 걱정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지적·행동적·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최근에 이르러 '불안'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걱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임상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생이나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고의 특성이나 성격특성들이 걱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석만, 유성진, 정지현, 2000; 신여운, 현

명호, 2004; 유성진, 권석만, 2000). 같은 맥락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걱정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대처방식 및 사고의 특성을 살펴본 강문희, 정은의(2003)도 걱정이 많은 청소년은 자기비판이나 문제에 대한 부정적 해석 및 사고를 억제하는 성향이 높고 일에 대한 추진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걱정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걱정수준이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성격적, 인지적 특성 중 특히 완벽주의나 문제해결자신감은 걱정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완벽주의는 부모나 타인의 기대로부터 부과된 것 일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완벽성을 추구하는 특성일 수도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성취지향적인 우리문화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압력에 의해 또는 자녀 스스로 완벽성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높고 완벽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완벽주의’(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는 일반적으로 부적응적인 인지나, 비판적인 자기평가와 관련된다(Blatte, 1995; Burns & Fedewa, 2005). 또한 완벽주의는 자기에 대한 의심이나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0; 허은정, 2005; Chang, 2000; Dunkley & Blankstein, 2000; Hewitt & Flett, 1993; Stöber & Joormann,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완벽주의가 걱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

을 예측하게 하지만, 사실상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가하면, 오히려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차원 대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한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는 ‘부적응적 평가염려(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s)’와 ‘긍정적 성취욕구(positive striving need)’의 두 개 요인을 추출하고 ‘부적응적 평가염려’는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반면, ‘긍정적 성취욕구’는 긍정적 정서와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의 적응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비록 명칭은 다르게 사용하나 기본적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및 비난으로 측정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와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로 측정되는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예; 전인숙, 2007; 황혜리, 2002; Chang, 2000; Dunkley & Blankstein, 2000; Slaney, Ashby, & Trippi, 1995; Stöber & Otto, 2006).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비교적 일관적으로 걱정과 관련된다고 보고된다. 즉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에 의해 동기화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0; 허은정, 2005; Stöber, Tepperwien, & Staak, 2000). 그러나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

이며 그 결과들 역시 비일관적이다. 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을 유발하는 변인이었다는 보고(Hewitt & Flett, 1993)가 있는가하면, 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중 하나인 ‘개인적 기준’이 걱정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Stöber & Joormann, 2001)가 있다. 반면에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관련 걱정과 관련이 없으며(Dunkley, Blankstein, & Wilson, 2008), 성공지향 및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Frost & Henderson, 1991)가 있어 연구마다 불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완벽주의가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으로 나뉘어 질수 있음을 시사하며, 걱정과 완벽주의간의 관계 역시 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개인이 가진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은 일종의 대처(coping)자원으로, 어려움이나 걱정애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해주고 사회적인 유능감이나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특히 걱정과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문제해결 기술이나 능력자체보다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걱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0; Davey, 1994; Dugas, Gagnon, Ladouceur, & Freeston, 1998). 따라서 문제 상황에 처해 문제해결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 동기가 저하된 개인은 걱정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은 개인은 어렵거나 걱정스러운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걱정이 높은 사람은 걱정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능력에 대해 의심

이 많고 비판적이며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강문희, 정은의, 2003)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같이 문제해결자신감 여하에 따라 걱정수준이 달라진다면 완벽주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걱정은 문제해결 자신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완벽주의적 성격과 문제 상황에서 갖는 문제해결자신감 정도는 청소년의 걱정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한편, 문제해결자신감은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를 중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그 종류에 따라 걱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완벽주의 또는 문제해결력이 걱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밝힌 것이 대부분이며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과의 관계를 파악한 몇몇 연구가 있으나(유성진, 권석만, 2000; 허은정, 2005; Stöber & Joormann, 2001),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의 성 또한 걱정이나 완벽주의, 문제해결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Stöber & Bittencourt, 1998) 하고,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보고(Borkovec et al., 1983; Meyer, Miller, Metzger, & Borkovec, 1990)도 있다. 완벽주의성향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유상미, 2008; Baker, 1996) 하면,

성차가 없다는 결과들도(김은아, 1997; Hewitt & Flett, 1993)있다. 또한 문제해결 자신감에 있어서도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문제해결 확신감이 높다는 보고(김경선, 1986)와 함께, 여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이 더 높다는 보고(김은경, 1984), 그리고 청소년의 성에 따라 문제해결자신감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Dixon, 1991)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분석으로 연구변인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남녀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뿐 아니라 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가 문제해결자신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은 걱정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자신감은 중재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류층 가정의 서울시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394 명으로(남자: 208명; 여자: 186명),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5세(SD=.68)였다.

2. 측정도구

걱정

청소년의 걱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Meyer, Miller, Metzger 및 Borkovec(1990)이 개발한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를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며, ‘걱정이 나를 누른다’, ‘일단 걱정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 등으로 구성된 16개 문항을 청소년들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한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Frost, Marten, Larhart와 Rosenblate(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척도 35문항을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점수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기대’ 및 ‘부모비난’ 등 4개 하위요인의 점수평균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점수는 ‘조직화’와 ‘개인적 기준’의 2개 하위요인의 점수 평균으로 측정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포함되는 문항내용은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뛰어 나갈 기대 하신다’ 등이며, 적응적 완벽주의에

포함되는 문항내용은 ‘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다. 청소년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는 모두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자신감

문제해결 자신감은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 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를 최혜경(1997)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11문항), 접근-회피(16문항), 개인적 통제감(5문항)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척도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한다’를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5점 척도에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해결 자신감 척도의 문항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서울의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1, 2학년 6개 학급을 통해 총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420부 중 결측치 및 복수응답이 있는 질문지와 이상값 또는 극

단값이 있는 질문지 26부를 제외하고 39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t검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시에는 독립변수와 중재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평균집중화를 실시한 후 모든 변인의 VIF(분산팽창계수)값은 1.00~1.43의 값으로 10미만이었으며, 공차한계값은 0.78~1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¹⁾. Durbin-Watson 검정통계량 또한 1.961~2.158로 2에 근접해 자기상관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회귀분석의 결과 중재효과가 유의할 경우, 사후검증을 위해 변인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화하고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기초분석 자료인 청소년의 걱정과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 자신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는 표 1과 같다. 완벽주의의 두 가지 유형 중 적응적 완벽주의

1) VIF(분산팽창계수)값이 10미만이고 공차한계값이 0.7이상 1이하의 값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서혜선, 2007).

2) Durbin-Watson test 값이 2에 근접할 경우, 자기상관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김연형, 2006).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남녀 청소년 간 성차

남: N=208, 여: N=186

변인	구분	문항평균(SD)	t
완벽주의	부적응적	2.60(.69)	.35
	완벽주의	2.57(.70)	
	적응적	2.78(.69)	-3.76***
	완벽주의	3.06(.74)	
문제해결 자신감	남학생	3.09(.60)	4.23***
	여학생	2.85(.56)	
걱정	남학생	2.49(.58)	-1.92
	여학생	2.60(.55)	

*** $p < .001$

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보다 대체로 높았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적응적 완벽주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제해결 자신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걱정점수는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 자신감과 걱정간의 관계

연구문제 1인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 자신감과 걱정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남녀 청소년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 상관이 높아(각각 $r = .60$, $p < .01$; $r = .45$, $p < .01$),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는 각기 다른 완벽주의차원의 영향을 통제 한 편상관을 산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단

순상관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편상관분석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관계없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걱정수준이 높으나, 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과 무관하였다. 한편, 남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은 걱정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은 걱정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을 때 걱정수준이 낮은 반면, 여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은 걱정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3.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걱정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적 역할

연구문제 2인 청소년의 부적응적, 적응적

표 2. 청소년의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자신감과 걱정간의 Pearson 상관계수

		부적응적 완벽주의		적응적 완벽주의		문제해결 자신감
		단순상관	편상관 ^a	단순상관	편상관 ^b	
걱정	남학생 (N=208)	.49**	.37**	.36**	.09	-.32**
	여학생					
	(N=186)	.50**	.45**	.26**	.05	-.02

a적응적 완벽주의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

b부적응적 완벽주의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

** $p < .01$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 자신감의 독립적 영향력과 복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청소년의 걱정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차원의 완벽주의를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또는 적응적 완벽주의 점수와 문제해결자신감 점수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두 변인

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자신감은 각각 걱정에 유의한 주 효과를 나타냈으며(각각 $\beta = 1.19$, $p < .001$, $\beta = .37$, $p < .05$), 상호작용변인 또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 = -.68$, $p < .05$). 그러

표 3. 남녀 청소년의 걱정점수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하위요인 \ 단계	남학생(N=208)			여학생(N=186)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적응적 완벽주의	.36***	.06	.07	.26***	.15	.15
부적응적 완벽주의(A)		.40***	1.19***		.42***	.83***
문제해결 자신감(B)		-.20*	.37*		.12	.41
A x B			-.68*			-.47
R^2	.21	.29	.31	.16	.27	.27
ΔR^2		.08	.02		.11	.00
F	55.49***	27.51***	23.19***	34.43***	21.94***	16.98***
df	1, 206	2, 204	1, 203	1, 184	2, 182	1, 18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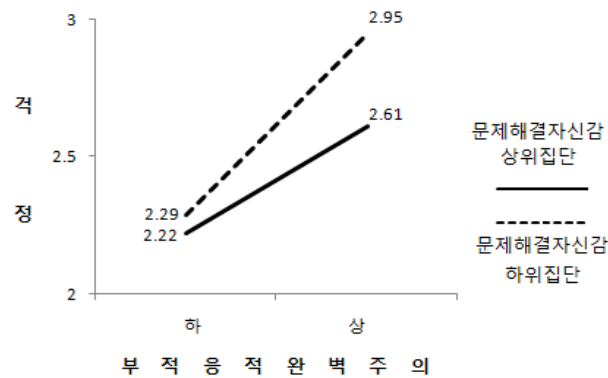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상위집단의 문제해결 자신감 상하에 따른 걱정점수

나 여학생의 경우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이 걱정에 유의한 주 효과를 나타내는데 반해($\beta = .83, p < .001$), 문제해결 자신감 및 그 상호작용 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남학생에게서 나타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자신감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문제해결 자신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걱정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M = 2.22$ vs $M = 2.29, t = -.68, ns$). 그러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 때는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은 남학생이 문제해결 자신감이 낮은 남학생보다 걱정점수($M = 2.61, SD = .45$ vs $M = 2.95, SD = .54$)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t = -2.63, p < .05$) 문제해결자신감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와

같은 절차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영향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경우는 적응적 완벽주의 주효과($\beta = .67, p < .05$)와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68, p < .05$).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 그 어느 변인도 걱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남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그림 2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가 낮은 경우에는 문제해결 자신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걱정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M = 2.26$ vs $M = 2.36, t = -.95, ns$). 그러나 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 때는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은 남학생이 문제해결 자신감이 낮은 남학생보다 걱정점수($M = 2.48, SD = .60$ vs $M = 2.79, SD = .58$)가 유의하게 낮아($t = -2.28, p < .05$)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에서도 문제해결자신감은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녀 청소년의 걱정점수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하위요인 \ 단계	남학생(N=208)			여학생(N=186)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부적응적 완벽주의	.49***	.44***	.45***	.50***	.48***	.48***
적응적 완벽주의(A)		.00	.67*		.11	.02
문제해결 자신감(B)		-.22**	.30		.12	.06
A x B			-.68*			.08
R^2	.24	.29	.30	.25	.25	.25
ΔR^2		.05	.01		.00	.00
F	65.96***	27.35***	22.12***	62.29***	21.93***	16.38***
df	1, 206	2, 204	1, 203	1, 184	2, 182	1,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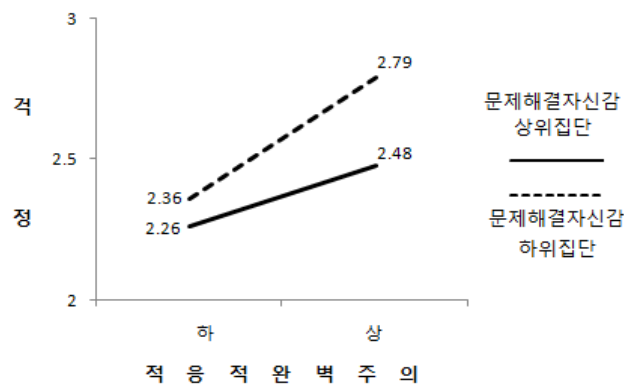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남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 상하집단의 문제해결 자신감 상하에 따른 걱정점수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및 문제해결 자신감과 걱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완벽주의의 각 차원(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적응적 완벽주의)과 걱정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해결 자신감에 따라 달라지는지

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총 394명(남학생 208명; 여학생 186명)으로 걱정, 완벽주의, 문제해결 자신감에 관한 청소년 보고용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수준에서 완벽주의, 걱정 및 문제해결 자신감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적응적 완벽주의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에서는 성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주의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성차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다. 그러나 적응적인 완벽주의가 ‘개인적 기준’이나 ‘조직화’에 관련된 완벽주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상 남학생보다 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걱정수준은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문제해결 자신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은 다소 다르지만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문제해결 확신감이 높다는 보고(김경선, 1986)와 일치한다. 반면에 문제해결 자신감이 여학생이 더 높거나(김은경, 1984)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Dixon, 1991)와는 달라서 문제해결 자신감의 성차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

둘째,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 청소년의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적응적 완벽주의 모두 남녀 청소년의 걱정수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걱정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완벽주의가 높으면 걱정이 많다는 선행연구들(박현주, 1999; 유성진·권석만, 2000; 허은정, 2005; Stöber & Joormann, 2001)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Frost et al., 1993, Dunkley et al., 2008) 및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응적 완벽

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차원의 완벽주의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을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걱정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적응적 완벽주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걱정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남녀 청소년 모두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걱정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을 유발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유성진·권석만, 2000; 허은정, 2005; Stöber & Joormann, 2001)을 지지한다. 결국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정적인 관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등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완벽주의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분석 결과, 남녀 청소년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사라져 남녀 청소년의 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결과(Chang & Rand, 2000)를 지지한다. 그러나 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기준’에 기초한 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과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조직화’는 걱정과 관련이 없었다는 Stöber와 Joormann(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결국 부적응적 완벽주의와는 달리 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나 적응적 완벽주의가 개인에게 성취감과 만족감등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Frost et al., 1993, Dunkley et al.,

2008)에 비추어 볼 때,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인 입장(Frost et al., 1993)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은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여 걱정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은 걱정을 부적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해결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걱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김정원, 민병배, 1998; 유성진, 권석만, 2000; Davey, 1994; Dugas et al., 1998)를 지지한다. 또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와 걱정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자신감의 중재효과도 나타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남학생의 경우 특히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은 남학생은 자신감이 낮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걱정수준이 낮았다. 남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중재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개인이 자신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자로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문제상황에 보다 잘 적응함으로써 문제해결자신감이 걱정 에 대해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유외숙, 2000; Nezu, 1986)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해 걱정이 많은 남학생이라 할지라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걱정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여학생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을 예측하는 주요변수였으나, 문제해결 자신감의 독립적인 효과나 중재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즉, 여학생의 경우 오직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이 유일한 주요변수로서 걱정 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 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한다는 연구나(D'Zurilla, Chang, & Faccini, 1998; Robichaud, Dugas, & Conway, 2003), 남학생의 문제해결 자신감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완벽주의를 두 개 차원으로 나누어 걱정간의 관계를 본 연구가 드물고 문제해결자신감의 중재역할을 파악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러한 해석은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 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과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역할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문제해결 자신감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문제해결 자신감 자체는 걱정을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고 문제해결자신감이 낮을 경우 특히 걱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낮은 문제해결자신감이 합쳐졌을 때 걱정이 가중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여학생의 경우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를 통제 한 상태에서 적응적 완벽주의나 문제해결 자신감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을 함께 고려한 연구결과가 없어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적응적 완벽주의에 비하여 걱정을 보다 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는 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영향을 통제된 경우 적응적 완벽주의가 걱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여학생은 문제해결 자신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남녀 청소년의 걱정을 가장 잘 예측한 반면, 남녀 청소년의 적응적 완벽주의는 걱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완벽주의(부적응적, 적응적 모두)가 높고 문제해결 자신감이 부족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 한편, 문제해결 자신감이 높을 경우는 완벽주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중재)되어 걱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오직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이 걱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적응적 기능과 부적응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 결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고 둘 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완벽주의 두 차원과 걱정간의 관계 및 성차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중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이 지각한 문제해결 자신감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걱정을 조절하는 중재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나 양육행동 등 환경적 변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걱정이 증가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적응적 완벽주의의와 문제해결 자신감이 걱정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 및 문제해결 자신감의 중재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파악한 한편, 완벽주의 두 가지 차원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완벽주의의 기능적,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남학생의 경우 완벽주의로 인한 걱정이나 부적응을 중재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문제해결 자신감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남녀 청소년 지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문희, 정은의 (2003). 걱정수준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고억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439-460.
- 권석만, 유선진, 정지현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 위협평가와 위협대처에서의 인지적 편향과 파국적 사고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467-487.
- 김경선 (1986). 대학생의 자아실현성과 문제해결 인식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은경 (1984). 가정환경과 개인문제해결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아 (1997). 부모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이화여자*

-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 방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3-92.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여운, 현명호 (2004). 병리적 걱정을 하는 사람의 걱정에 대한 신념과 대처방략.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45-63.
- 유상미 (2008).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성진, 권석만(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 특성. *심리과학*, 9(1), 15-37.
- 유외숙 (2000). 스트레스, 정동성,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과 성 욕구 및 충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인숙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혜리 (2002).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심리적 특성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은정 (2005). 심상과제가 불면증이 있는 대학생들의 불면증, 걱정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lbano, A. M., & Hack, S. (2004).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G. Heimberg, C. L. Turk and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p.383-408). NY: The Guilford Press.
- Baker, J. A. (1996). Everyday stressors of academically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7, 356-368.
- Barber, B. L., Eccles, J. S., & Stone, M. R. (2001). Young Adult Pathways Linked to Adolescent Activity Involvement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429-455.
- Blatte,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J.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 9-16.
- Burns, R. & Fedewa, B. (2005). Cognitive styles: link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03-113.
- Chang, E. C.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outcomes: Examining mediation model younger and older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8-26.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Davey, G. C. L. (1994). Worrying,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problem solving confide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0, 327-330.
- Dixon, W. A.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51-56.
- Dugas, M. J., Gagnon, F., Ladouceur, R., & Freeston, M. H. (1998). Generalization anxiety disorder: a preliminary test of a conceptual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215-226.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el, and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unkley, D. M., Blankstein, K. R., & Wilson, J. (2008). Evaluative Concerns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Current Psychology*, 27, 29-61.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6).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65-676.
- D'zurilla, T. J., Chang, E. J., & Faccini, N. L. (1998).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Depression: Evidence for a Recover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87-101.
- Fourinier, S., Freeston, M. H., Ladouceur, R., Dugas, M. J., & Guevin, M. C. (1996). Excessive worry and anxiety in junior and senior highschool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Quebec City, Quebec, Canada.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e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 Henderson, K. J. (1991). Perfectionism and Reactions to Athletic Competi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3, 323-335.
- Harrington, R., Fudge, H., & Rutter, M., (1991).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merica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 434-449.
- Heppner, P. P., & Peterson, C. H. (1982). The developmental and implications of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70.
- Hunt, S., Wisocki, P., & Yanko, J. (2003). Worry

- and use of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7, 547-560.
- Meyer, T., Miller, M. L., Metzger, R. L., & Bork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87-495.
- Muris, P., Roelofs, J., Meesters, C., & Boomsma, J. (2004). Rumination and Worry in Nonclinical Adolesc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539-554.
- Nezu, A. M. (1986). Negative life stress and anxiety: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variable. *Psychological Reports*, 58, 279-283.
- Robichaud, M., Dugas, M. J., & Conway, M. (2003). Gender differences in worry and associated cognitive-behavioral variables. *Anxiety Disorders*, 17, 501-516.
- Slaney, R. B., Ashby, J. S., & Trippi, J. T. (1995). Perfectionism: The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The journal of career assesment*, 3, 279-297.
- Stöber, J., & Bittencourt, J. (1998). Weekly assessment of worry: An adapt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monitoring changes during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645-656.
- Stöber, J., & Joormann, J. (2001). Worry,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m: Differentiating Amount of Worry, Pathological Worry,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49-60.
- Stöber, J., & Otto, K. (2006). Perfectionism and competitive anxiety in athletes: Differentiating striving for perfection and negative reactions to imperfe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959-969.
- Stöber, J., Tepperwien, S., & Staak, M. (2000). Worrying leads to reduced concrete-ness of problem elaborations: Evidence for the avoidance theory of worry. *Anxiety, Stress, and Coping*, 13, 217-227.
- 1 차원고접수 : 2009.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9. 08. 25.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Maladaptive and Adaptive Perfectionism and Worry: The Moderating Role of Problem-Solving Confidence

Lee, Young Sun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ark, Seong Yeo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gender, perfectionism, problem-solving confidence and adolescent's worry. The moderating role of problem-solving confidence was also examined. The subjects were 394 high school students(208 boys; 186 gir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dolescents'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Our results indicated that both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roblem-solving confidence independently predicted the levels of worry in boys, whereas only maladaptive perfectionism predicted the levels of worry in girls. Furthermore, problem-solving confidence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perfectionism upon boys' worry in particular. However, adaptive perfectionism predicted independently neither boys' worry nor girls' worry. The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worry and in the moderating role of problem-solving confidence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worry, maladaptive perfectionism, adaptive perfectionism, problem-solving confidence, adolescents